

/지역 단신/

함평경찰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함평경찰서(서장 한재숙)가 지난 3일 함평읍 원돌어린이집 원생 및 학부모 50여 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사진>



이날 교육은 통학버스 안전 승하차 요령과 횡단보도 안전하게 건너는 방법 등 주로 어린이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교통안전 교육을 이론과 현장실습을 병행해 학부모와 원생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

완도 청해진농협 농기계 무상수리

완도 청해진농협(조합장 김창근)이 군외면, 신지면 등지에서 무상 농기계 순회 수리 서비스를 실시, 농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사진>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실시된 이번 무상 수리 서비스는 낫은 고장과 부품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들을 돕기 위한 것으로, 경운기·예취기·콤바인·분무기 등 200여대를 수리했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

무안군 환경미화원 공채 8대 1

무안군(군수 서삼석)환경미화원 공채 채용 응시율이 최고 8대 1을 기록했다. 원서 마감 결과 무안읍은 2명 선발에 16명이 응시 8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1명씩을 뽑는 몽탄·방운·해제면은 평균 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가 14명(45%)으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11명(36%), 20대가 6명(19%)이며, 학력별로는 고졸자가 17명(55%)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응시자 중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가 13%를 차지했다. 무안군은 8일 체력심사와 18일 면접시험을 거쳐 오는 23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무안=이원희기자 whlee@

**만학도에 30만원씩 지원
순천시 올해부터 55세이상 수업료 일부**

순천시가 55세 이상 만학 대학생들의 학습 의욕 및 사기 진작을 위해 올해부터 수업료 일부를 지원해 주기로 했다. 시는 1년 이상 순천 거주자로 지역내 정규 대학과정(전문대학 포함)에 재학 중인 대학생 가운데 만 55세 이상 3학기 이상 등록자에게 매년 30만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대상자는 오는 11~31일 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등본, 재학증명서, 등록금 납입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 시는 지원 취지를 살리기 위해 평생학습 발전 방안에 관한 보고서도 함께 제출토록 했으며 지원을 받은 대학생들이 졸업하면 한글작문 교실 등 평생 학습 분야 자원봉사자로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22명 정도가 지원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젊은 대학생들과 함께 학업을 볼태우는 만학도들의 학업성취 의욕을 북돋우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선박 폐유허활유통 '바다오염'

**목포항 매년 5천여개 발생
관계기관 회수대책 세워야**

선박에서 유허활유를 사용한 뒤 발생하는 폐유허활유허들이 제대로 수거되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목포지역에서 매년 발생하는 폐유허활유 양은 18ℓ(1말)들이 용기로 추산할 경우 약 5천개 정도인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체계적인 수거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일부 어민들이 폐유허활유허를 무단 폐기하고 있으나 관련 기관에서는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한 채 수수 방관하고 있다. 폐유허활유허는 지정폐기물로서 고물수집업체에서는 취급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해양 폐기물 민간업체나 해양오염방제조합에서는 처리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물업체에서는 아직도 일부 어민들이 단속의 눈을 피해 폐유허활유허를 바다에 버리거나 육상에 임시방편으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선주 K씨는 "폐유허활유허는 폐어구처럼 수거비

용도 보장되지 않고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체계가 없어 항해 도중 폐유허활유허를 바다에 버리는 경우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 전문가들은 막대한 양의 폐유허활유허가 바다로 버려지면서 해양오염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체계적인 회수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목포해수청은 폐유허활유허의 효율적인 수거체제를 개선하기 위해 폐유허활유허 압축기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할 위탁관리 업체선정을 추진하고 있다. 목포수협에서도 공급받은 수량만큼의 폐유허활유허를 수거해야하면 면세유를 추가 공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 중에 있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맨손으로 은어 잡아봐!
11일부터 '탐진강 은어축제'**

제 3회 은어축제가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강진 탐진강에서 열린다. 2만5천여 명의 탐진강 둔치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는 맨손 은어잡이와 다슬기, 재첩잡기, 맨손으로 뱀장어 옮기기 등 다양한 재미거리가 준비하다. 이곳 탐진강 둔치는 평소에도 시원한 강바람으로 무더위를 식히기 위해 많은 주민들이 찾고 있어 축제와 피서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단위 나들이 코스로는 제격이다. 은어회와 튀김, 무침, 매운탕 등 다양한 먹거리와 함께 연예인 초청 가요제 등 푸진한 볼거리도 눈길을 끌고 있다. /강진=이병철기자 mood@



휴일인 지난 6일 압록유원지를 찾은 피서 인파. 압록유원지 일대는 익사사고가 많이 발생해 피서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곡성=김계중기자 kjkim@

섬진강변 익사 '요주의'

물살 깊고 '여울' 생겨 물놀이 사고 잇달아

섬진강변에서 매년 익사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피서객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섬진강과 보성강이 만나 삼각주를 이루는 곡성군 오곡면 압록리 일대에는 물살이 깊고 가파른 '여울'이 생겨 이로 인해 행락객이 목숨까지 잃는 경우가 발생, 주의가 당부된다. 전남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곡성군 오곡면 압록리 일대에서는 지난 2003년부터 현재까지 8명의 피서객이 물놀이를 하던 도중 목숨을 잃었다. 이번 개편으로 5개 노선이 폐지됐으며 2개 노선이 신설됐고 7개 노선은 운행횟수나 코스도 변경됐다. 읍·면지역 노선들은 대부분 현재와 같이 운행된다. 폐지되는 노선은 24번, 26번, 50번, 55번, 58번 등으로 주로 도심지역을 운행하는 노선이다. 또 도심순환노선 100번과 101번을 신설해 15분 간격으로 운행함으로써 환승이 원활하도록 했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조류흐름 막아 생태계 파괴 남창교 철거, 현수교 가설을"

**해남 북평면 주민들
"바지락 등 연 80억 손실"**

해남 북평면 주민들이 조류 흐름을 막은 해남 남창교를 철거하고 현수교로 새로 건설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1962년 북평면 남창리와 완도군 군외면 달도 간에 초대식 교량을 시작으로 제 2, 3 남창교가 차례로 건설됐고 1998년에는 또 다시 길이

100m의 4차선 남창대교가 세워지면서 바다가 황폐화됐다. 특히 4차선 교량 건설 과정에서 초대식 교량 일부만 철거되고 기존 교량은 그대로 방치되면서 초출한 교각이 조류 흐름을 방해해 인근 개펄이 썩고 퇴적물이 계속 쌓이는 등 해양 생태계가 심각하게 파괴되고 있다. 주민들은 "교량이 건설되기 이전에는 이 일대에 바지락, 낙지, 꼬막 등 각종 수산물의 보고였는데 이제는 완전히 고갈돼 연간 8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

강진 문화복지타운 표류

지자체 첫 BTL방식 추진사업 업체 선정 못해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민간투자(BTL)방식으로 강진군이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문화복지종합타운 건설사업이 업체 선정 지연으로 표류하고 있다. 강진 문화복지종합타운은 490억원을 들여 연면적 1만1천여㎡에 1천석 규모의 공연장을 비롯한 야외음악당, 미술관,복지회관 등 복합시설로 지난해 10월 착공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말 민간업체 2곳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1월말 평가를 완료했으나 7개월이 넘도록 업체 선정이 미뤄지고 있다. 강진군은 우선협상 대상자 2순위로 결정된 업체가 평가항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고문변호사 자문 등으로 결정이 미뤄졌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평가를 맡았던 한국개발연구원과 고문변호사 등이 이의 제기 대해 '재론 여지가 없다'는 통보까지 한 것으로 밝혀져 결정 지연에 대한 의혹이 일고 있다. 더욱이 군은 재평가까지 끝난 이 사업에 대해 최근 모 사회단체에 다시 자문을 구한 것으로 밝혀져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순위 업체 대표는 이 지역 출신으로 최근 수억원의 장학금을 지역에 기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강진=이병철기자 mood@

**영광에 9홀 규모
대중골프장 조성**

영광읍 단주리 옛 쓰레기 매립장 일대에 대중골프장이 조성된다. 영광은 오는 2010년께 완공 목표로 단주리 옛 쓰레기 매립장과 주변부지 8만5천여㎡에 9홀 규모의 퍼블릭 골프장 조성 에 나서기로 했다. 영광군은 최근 군의회로부터 '친환경 대중골프장 건립 계획안'에 동의를 받았으며, 전남도를 통해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사업 신청을 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올해 말에 골프장 조성 여부를 결정한다. 영광군은 금년 말 영광~광주 4차선 도로 공사가 끝나면 승용차로 영광~광주가 약 40분 소요되며, 서해안고속도로도 영광 인터체인지가 있어 골프장이 조성되면 외지 골퍼들의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영광읍 단주리 매립장은 2만평 규모로 2005년 매립이 완료됐다. /영광=조익성기자 ischo@

**담양군 은행나무 2그루
국가문화재 지정 추진**

담양군은 지방기념물인 후산리 은행나무(제45호·사진 왼쪽)와 봉안리 은행나무(제167호)의 국가문화재(천연기념물) 승격지정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담양군은 9일 두 나무에 대한 나무높이 등 수목 현황과 전체적인 생육상태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고서면 후산리 은행나무는 300여년 이상된 노거수로 조선인 조가 왕위에 오르기 전 이곳을 찾아 말을 댔다해 '인조대왕의 계마(繫馬)'이라고도 불린다. 무정면 봉안리 은행나무는 마을 안에 자리한 수령 400여년 당산나무로 8·15 광복, 한국전쟁 등 국가의 중대사 때마다 울었다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다. /담양=차재화기자 jhwha@



영화안니
인기영화 상영을 위한 보너스
Happy Time
영화가안니

메가박스
구.련안약국사거리 ☎예매1544-0600
최고급극장
1관 **괴물** (12세/다중)
2관 **괴물** (12세)
3관 **캐리비안 해적-말자의 함** (12세)
4관 **한반도** (15세) / **올라이대디** (12세)
5관 **괴물** (12세)
6관 **괴물** (12세) / **유실물** (15세)
7관 **스승의 은혜** (18세)
8관 **올라이대디** (12세)
9관 **괴물** (12세)
Megazen Day 매주 목 금 영화 4,000원 관람
*이프유 주차장 이용시 3시간 무료
(단, 영화관람객에 한함) 3시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강연이 무제한 공파 (매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엔터시네마
총장로 5가 ☎ 228-2700
1관 **가필드** (연제/7세)
2관 **포켓몬 레지와 비의 왕자 마나피** (연제/7세)
3관 **한반도** (15세)
4관 **올트라 바이올렛** (12세)
5관 **올라이대디** (12세)
6관 **아파트** (18세)
7관 **캐리비안/캐리비안의 해적** (12세)
7월27일부터 8월 10일까지 상영 예정 *재미 영상 30분 2014 12월 15일
*무선 10월 10일 10시 30분 10월 10일 10시 30분 *무선 10월 10일 10시 30분
*매주 목요일 Teen Age Day 등, 12월 15일 10시 30분 (연휴일 제외)

콜롬버스 시네마
하남점 (무의화관동) 상무점 (상무영원과 아파트 사이)
1관 **스승의 은혜** (18세)
2관 **캐리비안/유실물** (15세)
3관 **올라이대디** (12세)
4관 **올라이대디** (12세)
5관 **한반도** (15세)
6관 **가필드** (연제/7세) / **괴물** (12세)
7관 **괴물** (12세)
8관 **캐리비안의 해적** (12세)
8관 **포켓몬 레지와 비의 왕자 마나피** (연제/7세) / **괴물** (12세)
10관 **괴물** (12세)
*휴일 최대 주차장 *매일 상영 *1588-7941
*콜롬버스 하남점 ☎예매 1588-7941 상담원역점 방문 (1번 또는 2번) → 1번

씨너스 광주 8개관
8월 초 오픈
T.383-3445~7
남·여 직원 및 이력비트 모집
상가임대문의
T.(062)384-3535